

위 장 병

편 집 실

평소 위장에 별로 탈이 없던 성인을 대상으로 X선 검사를 해보면 1,000명의 하나들은 위암, 100명의 둘 정도는 위궤양으로 발견되는데 이렇게 위장의 병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된다. 위는 그 외에 만성위염이나 위포리-프, 위아토니 등에, 또한 장은 상습변비나 만성설사, 장암, 포리-프, 계실(憩室) 등 여러병에 걸리기 쉬운 장기이다. 또한 이런 병들은 어느정도 연령과도 관계가 있다. 위십이지장의 궤양은 20대부터 늘고, 특히 위궤양은 40세 이상에서 많으며, 위암, 식도암, 대장암은 40세를 지나면서 많아진다.

그리고 최근에는 위암이 조금씩 감소하는데 비해 대장암이 늘어 소위 구미화(歐美化)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위는 음식을 일정시간동안 담아두었다가 위액을 분비하면서 섞어 소화되기 쉬운 상태로 하여 십

이지장에 내보내는 자루와 같은 모양의 장기이다. 위가 하는 일은 첫째, 단백질을 「펩톤」이라고 하는 저분자물질로 분해하여 장에서의 단백질흡수를 돕기 위한 제일조건을 만드는 것이며, 둘째로는 굳거나 혹은

마른 식물(食物)에 위액을 섞어 죽과 같은 형태로 해서 장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이 두가지 작용이 완전히 이루어져야만 비로서 소장에서 식물의 소화흡수가 원활히 된다.

증상이 말해주는 위장의 병

■ 식욕부진

식욕이 떨어지면 누구나 곧 위장의 병을 연상하는데 이외에도 전신의 여러병으로 식욕이 저하되고 또 신경적인 작용으로 식욕이 부진하게 되는수도 많다. 또 변비도 식욕부진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위의 병으로 식욕부진이 되는 것은 위염의 경우이다.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의 초기단계에서 식욕부진이 되는 일은 흔치않다. 식욕이 부진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위의 뒤에 있는 췌장(胰臟)의 병이다. 또한 간장의 병 중에도 급성간염의 초기에는 강한 식욕부진과 구역질이 일어난다.

■ 트림, 가슴앓이, 입냄새

음식물과 같이 위에 삼켜들여간 공기가 입으로 나오는 것이 트림이다. 유문(幽門)에 협착(狹窄)이 생기면 나쁜 냄새의 트림이 나오지만 냄새없는 트림은 상관없다. 흔히 보는 것은 신경성 트림인데 신경질적인 사람일수록 공기를 잘삼키기 때문에 트림을 빈발하기 쉽다.

가슴앓이는 일반적으로 위산과다(胃酸過多)를 원인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무산증의 경우에도 가슴앓이를 일으킨다. 위산의 다소와 가슴앓이 사이



에는 그렇게 관계가 없다. 또한 위·십이지장 궤양, 암 등의 위장병과 가슴앓이 사이에도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자가 판단으로 무턱대고 제산제(制酸劑)를 먹는 것은 금물이다. 입냄새와 위장병과는 관계가 거의 없으나 유문협착이나 위암의 말기에는 입냄새가 심히 난다. 그러나 위장병보다는 우선 코나 이(齒)의 이상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치조농루(齒槽膿漏)에는 주의해야 한다.



■ 변비

변비는 크게 나누면 상습적인 것과 위장의 병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것의 두종류가 있다. 대장암이나 십이지장 궤양이 원인으로 일어나는 변비가 있어 주의를 요하며 40세가 지난 후에 변비가 자주 있으면 조심해야 한다.

■ 설사

설사를 일으키는 원인에는 폭음, 폭식, 식중독이 있는데 강한 스트레스나 정신적피로가 원인으로 일어날 때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정신의 안정이 필요하다.

■ 구역질, 구토

가장 많은 것은 급성위염일 경우이며, 폭음, 폭식을 하거나 식중독때도 일어난다. 먹은 것을 토하면 쉬 편안해지는 경우에는 유문협착, 유문부의 괴양, 암으로 유문이 막힌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식사와는 관계없이 먹기전에 토하는 경우에는 전부 토해도 편안해지지 않는다. 복막염, 담낭염, 급성췌장염 때 이런식으로 토하게 되고 또한 급성충수염, 신장결석일 때 때로 반사적으로 토할 때가 있다.

■ 배가 팽팽해질 때

장속에 가스가 차서 배가 팽팽해질 때가 있다. 변비, 만성췌장염, 장협착(암, 유착), 장폐색(腸閉塞), 복막염 때 일어난다.

■ 복통과 위장염

복통중에서 가장 격렬한 것은 위나 장에 구멍이 생겼을 때인데 심한 경우에는 쇼크상태에 빠진다. 담석발작이나 급성췌장염의 경우에도 격렬히 아프다.

특정의 병에서 보이는 위장통

■ 급성위(장)염

상복부에서부터 배전체가 아프고 때때로 구역질, 구토, 설사를 수반한다. 열은 얼마 높지 않으며 열이 있어도 2.3일로 내린다.

■ 토혈(吐血)

피를 토했을 때는 그 색에 의해 어느정도 병을 추측할 수 있다.

• 검은색일 때

우선 위궤양이 의심된다. 혈액과 위산이 섞여 변화하기 때문에 검어진다. 그리고 위암에서도 흑적혈(黑赤血)의 토혈은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

• 새빨간색일 때

위출혈의 경우에도 막 토했을 때는 새빨간 색이 나타나는데 식도의 출혈에서도 새빨간 색을 나타낸다.

■ 하혈

입으로 토하는 것과 반대로 대변과 같이 출혈하는 것을 하혈이라고 한다. 검은 「타아르」상의 대변이 나오면 상부소화관에서의 출혈이 고려되는데 적어도 100cc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대변은 검어지지 않는다. 특히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위·십이지장궤양이 의심된다. 대변에 붉은 피가 섞일 때는 대장에서의 출혈로 생각된다. 치질의 경우에는 배변 후에 깨끗한 빨간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대하여 괴양성대장염이나 대장계실염(憩室炎)의 경우에는 암적색의 혈액이 쏟아져 나올 때가 많고 대장이나 직장암의 경우에는 적혹색의 혈액에 점액이나 고름이 섞여있을 때가 많다. 여하간 하혈을 보면 소화기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 만성위염

식사후에 상복부에 가벼운 둔한 아픔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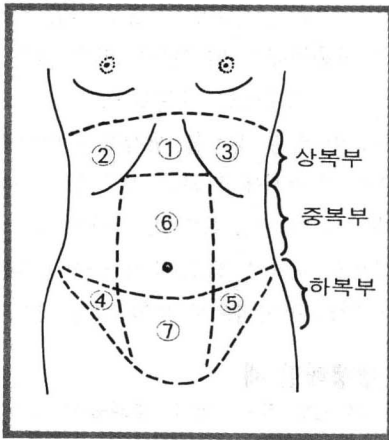
■ 위궤양

식후 30분에서 두 세시간 후에 상복부가 뜨끔뜨끔아프는데 식후 꼭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아프기 시작하는 일이 많다.

■ 십이지장궤양

공복시 상복부가 아픈 것이 특징이며,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먹으면 아픔이 가신다. 한참자고 난 후인 12시에서 1시 사이에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야간통이라고 한다. 식욕이 떨어지는 일은 없으나 때때로 가슴앓이나 신트림이 난다.

통증의 부위로 알수있는 위장병



■ 위부가 아플 때 ①

위궤양, 위염, 담석증, 담낭염, 췌장염일 때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급성충수염의 초기에는 구역질과 구토와 같이 상복부가 아픈 일이 있다. 급하게 위통을 호소할 때에도 한번쯤 충수염을 의심해 본다. 그러던 중 아픔이 우하복부에 국한되고 압통(壓痛)이 있으면 그 의심이 농후하다.

■ 우상복부가 아플 때 ②

우선 담석증, 담낭염이 생각되고 십이지장궤양일 때도 있다.

■ 좌상복부가 아플 때 ③

췌장의 병, 위염, 위궤양 등을 고려한다

■ 우하복부가 아플 때 ④

조심해야 하는 것은 충수염인데 신장결석의 경우에도 충수염과 비슷한 아픔이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부인과의 병일수도 있다.

■ 좌하복부가 아플 때 ⑤

우선 생각되는 것은 대장의 하행결장, S상결장, 직장의 병이다. 특히 배변과 같이 아픔이 사라질 때 그 가능성이 크다.

■ 중심부가 아플 때 ⑥, ⑦

기능적인 고장으로 일어나나 또한 소장염, 회(回)장염과 같이 비교적 성질이 좋은 병일 때가 많다.

질병별로 주의할 사항

■ 급성위염

알레르기성, 세균성의 것도 있으나 가장 많은 것은 폭음, 폭식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배가 팽팽한 느낌, 무거운 느낌, 위의 아픔, 구토 등이 일어난다. 전쾌하기까지 일주일후가 걸리고 우선 하루쯤 절식한 다음 유동식, 보통식으로 이행한다.

■ 만성위염

불섭생이나 급성위염이 되풀이되거나 코, 목, 기관에 병변이 있거나 충치가 있어 더러운 농(膿)이 위속에 들어가면 만성위염이 되는 일이 있다. 그리고 술, 담배, 기타 기호품도 도가 지나치면 위에 좋지 않다.

■ 급성장염

과식이나 소화되기 어려운 것, 비위생적인 식품을 섭취했을 때 일어난다. 갑자기 설사할 때가 많고, 발열, 복통, 구토를 동반하는데 설사는 세균성원인으로 일어나는 것이 많다.

■ 만성장염

급성위염이 계속된 뒤 만성으로 되는 경우, 폭음, 폭식 등 식생활의 난맥으로 만성으로 되는 경우와





잠재성인 당뇨병과 담석증이 원인이 되어 만성장염이 되는 일이 있다. 과민성대장염이라 하여 정신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설사, 복통을 되풀이 하다가 만성으로 되는 일이 있다.

■ 과민성대장

정밀검사를 해도 특히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복통이나 설사, 되풀이 될 때 과민성대장이라고 부르며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늘어감에 따라 최근 증가하고 있다.

■ 변비증

장의 고장에서 제일 많은 것이 무엇보다도 변비이다. 한마디로 변비라해도 실제로는 대장의 운동이 둔해져서 일어나는 이완성변비와, 반대로 장의 운동이 강하게 경련하기 때문에 대변의 통과가 방해되어 일어나는 경련성변비로 나뉘진다. 설사와 변비가 교대로 오는 경우가 적지않고 대장암이나 십이지장궤양 때문에 오는 경련성변비가 있기 때문에 변비도 설사와 같이 원인을 확실히 안 다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 위·십이지장궤양

올바른 치료를 하면 매우 낫기 쉬운 병이나 동시에 재발하기 쉬운 병이다. 옳은 치료를 받으면 대개는 3개월로 치유되나 환자의 30~40%는 1년내에 재발한다. 예방과 치료로서 중요한 것은

- 정신의 안정
- 규칙적인 생활
- 술, 커피, 향신료(香辛料), 염분이 많은 것,

탄산음료 등을 피하고 소화가 잘되고 영양가가 높은 것을 섭취한다.

의사가 처방한대로의 치료약을 복용한다.

■ 위암

위암의 원인은 아직 잘 모른다. 위암만의 특유한 증상이 없는 것이 위암의 특징의 하나라고 할수 있다. 특히 초기의 단계에서는 거의라 할수 있을 정도로 증상이 없고 꼭 진행되면 증상이 나타나지만 그것도 위염이나 위궤양과 비슷해 잘 알수 없다. 따라서 뭔가 위증상이 있으면 곧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아무 자각증상이 없는 사람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조기발견, 조기치료는 위암대책의 철칙이다. 특히 40세가 지나면 연 1회의 검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암의 치료는 수술이 원칙이다. 극히 초기의 위암이면 수술에 의해 90% 이상이 낫는다.

■ 식도암

40세 이상의 대주가(大酒家)나 담배를 지나치게 피우는 사람이 걸리기 쉬운 경향이 있고 발생률은 위암의 10분의 1 정도이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 식도암의 수술은 어려운 수술의 하나이나 조기에 수술하면 나올수 있으므로 정기검진을 꼭 받을 것이 요점이다.

■ 대장(직장)암

결장하부나 직장의 암에서는 배변시에 항문부의 불쾌감, 배변곤란, 변의 증가, 배가 팽팽한 감 등이 나타나는데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것은 혈변이다. 더 진행이 되면 빈혈이 일어난다. 대장암도 위암과 같이 초기에는 무증상인 일이 적지않은데 특이상부결장의 경우 더욱 그렇다. 대변에 혈액이 섞여있거나 묻어 있으면 곧 소화기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치료는 암부분의 대장을 자른다. 대장은 30~40cm 잘라도 기능에는 지장이 없다. ★

